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22(금) ~ 2025.8.28(목)

제공일시 2025 9 5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22(금) ~ 2025.8.28(목)

글로벌 정책

1. EU, 美공산품 무관세법 신속 발표...미, EU 車관세 15%로 낮출듯
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공산품 무관세와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담은 법안을 발표함
- 미국은 이에 따라 EU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기존 27.5%에서 15%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, 소급 적용 방침도 명시됨
- 이번 조치는 공동성명 발표 8일 만에 이뤄졌으며, 랩스터 무관세 연장 조치도 포함됨. EU는 법안 발효 시 한 달 만에 5억유로(약 8140억원) 이상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

[\(뉴시스 2025.8.29\)](#)

2. 독일 법원, 애플 '탄소중립' 광고 금지...그린워싱 논란

-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애플워치의 '탄소중립 제품' 광고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림
- 법원은 애플의 탄소중립 시계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지적함
- 애플이 이를 위반하고 광고를 계속하면 건당 25만유로(약 4억원)의 벌금이 부과되기에, 애플의 글로벌 친환경 마케팅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됨. 이번 판결은 환경단체 독일환경보호(DUH)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임

[\(이데일리 2025.8.26\)](#)

3. 美 산업정책, 반도체에서 핵심광물로...트럼프, 칩스법 20억달러 전용 검토

-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(CHIPS Act) 자금 중 최소 20억달러(약 2조7800억원)를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
- 이는 반도체 중심 지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로 산업정책의 무게가 이동하는 흐름으로 해석됨
- 앨버말과 MP머티리얼즈 등 핵심광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됨. 이번 움직임은 미국 공급망 전략의 확장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

[\(임팩트온 2025.8.22\)](#)

국내 정책

1. 환경부·유엔,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경로·조기 제출 협의

- 환경부 금한승 차관과 셸윈 하트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만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준비 현황을 논의함. 이번 회동은 하트 특보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됨
- 하트 특보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접근을 평가하며,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0)보다 앞서 기후·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NDC 제출을 요청함
- 우리 정부는 구체적 수치를 올해 하반기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, 양측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공감함

[\(데일리안 2025.8.27\)](#)

2. “원청 기술탈취 막는다”...하도급법 금지청구제 첫 도입

-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. 하청업체가 원청의 기술탈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됨
-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위법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함
-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임

[\(매일경제 2025.8.27\)](#)

3. “기업 해외로 다 탈출한다”...‘더 센 상법 개정안’ 국회 통과에 재계 충격

-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소송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돼 기업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
- 상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25일 진행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고,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함
-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,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임. 재계는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되는 후속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

[\(매일경제 2025.8.25\)](#)

글로벌 기업

1. 유럽 車업계 “내연기관 퇴출, 더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아”

- 유럽자동차제조협회(ACEA)와 유럽자동차부품협회(CLEPA)가 유럽연합(EU)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제출함
- 업계는 전기차 공급망 제약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을 이유로 규제의 현실성을 문제 삼음. EU 정책 유예나 수정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

[\(이데일리 2025.8.27\)](#)

2. ‘크리티컬 메탈스’, 15년간 美 처리시설에 희토류 공급…中 의존도 낮추기 본격화

- 미국 기업 크리티컬 메탈스가 그린란드 탄브리즈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15년간 미국 루이지애나 처리시설에 공급하기로 계약함
- 연간 최대 1만톤 규모로, 이는 탄브리즈 광산 초기 연간 생산능력의 약 10%에 해당함. 이번 계약은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강화 차원에서 이뤄짐

[\(톱스타뉴스 2025.8.27\)](#)

3. 美 MP머티리얼즈, 대중 수출 중단… 희토류 가격 2년 만에 최고치

- 미국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즈가 중국으로의 원광 수출을 중단함. 이에 따라 네오디뮴-프라세오디뮴(NdPr) 가격이 7월 kg당 63달러에서 8월 88달러로 40% 급등하여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
- 이는 전략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미국의 전략과 맞물림
- 중국도 희토류 쿼터제를 확대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광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, 기업들에 매달 광물 유통량 보고를 의무화하여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취함

[\(임팩트온 2025.8.27\)](#)

4. 노르웨이, 세계 최초 상업용 탄소 저장시설 ‘노던라이츠’ 가동 시작

- 노르웨이가 북해 심해 탄소저장 프로젝트 ‘노던라이츠’를 공식 가동함
- 1단계 개발이 완료됐음. 시설은 연간 150만톤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, 이미 유럽 기업들의 예약이 완료됨
- 해당 프로젝트는 에퀴노르, 셸, 토탈에너지스가 공동 개발했으며, 첫 저장분은 노르웨이 브레빅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임

[\(임팩트온 2025.8.27\)](#)

국내 기업

1. 6조원대 인도 배터리 투자에 한국 장비기업 '총출동'

- 인도 타타그룹의 배터리 자회사 아그라타스가 6조원 규모 배터리 셀 공장 건설을 위해 장비 기업을 선정할 계획임
- 한국 장비업체인 제일엠앤에스, 씨아이에스, 세종기술, 원익피앤이, 에스에프에이, 한화모멘텀, 엠플러스 등이 협상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. 업체별 미팅은 29일까지 진행됐으며, 3분기 내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임

[\(디일렉 2025.8.27\)](#)

2. SK이노베이션, 3조원 규모 베트남 LNG 발전소 수주전 가세

- SK이노베이션이 약 3조원 규모 베트남 광람 LNG 복합화력발전소 수주전에 참여함
- 이번 프로젝트는 제8차 전력개발계획(PDP8)에 포함된 우선순위 사업으로, 석탄화력에서 LNG로의 전환이 핵심임. SK그룹 에너지 계열사 SK E&S가 주도하며,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복합 단지 조성이 목표로 제시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8.27\)](#)

3. 현대차·기아, 英 전기차 보조금 받기 위해 'SBTi' 가입 신청

-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(SBTi) 가입 승인을 추진 중임
- SBTi 승인 시 영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구매 고객은 최대 3750파운드(약 695만원)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. 현재 현대차그룹은 탄소 감축 목표 승인을 위한 COMMIT 단계를 진행하고 있음

[\(MTN 2025.8.26\)](#)

4. HD한국조선해양, 현대중공업·현대미포 합병 추진...방산·친환경 시장 공략

- HD한국조선해양이 계열사 재편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합병을 추진함
- 양사는 12월 임시 주총과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'HD현대중공업'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임. 이번 합병은 대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방산·친환경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함
- 중국, 일본도 자국 내 대형 조선사 합병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 가운데,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 중·대형 조선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

[\(비즈니스리뷰 2025.8.27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8.22(금) ~ 2025.8.28(목)

제공일시 2025 9 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노후 인프라 사고 계기, 美 파이프라인 책임법 재발의...EPC 입찰 조건에도 파급

- 미국 의회에서 '파이프라인 책임법(Pipeline Accountability Act)'이 재발의 됐다. 이 법은 노후 인프라 사고를 계기로 안전 규정과 기후 대응 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
- 법안은 2018년 매사추세츠 메리맥 밸리 가스 폭발, 2020년 미시시피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파열 등 사고를 배경으로 마련됐으며, 공공 안전과 기업 책임,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강조함
- 에드워드 J. 마키 상원의원(민주당·매사추세츠)과 하원 에너지·상무위원회 소속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(민주당·매사추세츠)이 공동 발의했으며, 시민 참여와 기업 책임 강화를 통해 재난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주요 조항은 안전·기후 기준 강화, 신속한 규제 제정, 공공 참여 확대, 인프라 현대화 및 사고 예방, 재원 및 책임성 강화 등 포괄적 접근을 포함함
- 규제기관인 파이프라인·위험물안전청(PHMSA)에 기후 영향, 인프라 수명, 대체재 전환 등을 고려한 규제 마련을 의무화했으며, 중복 절차 제거로 규제 속도를 높이는 조항도 포함됨
- PHMSA 내 공공참여사무소 신설, 안전위원회의 시민 이해관계자 권한 강화, 천연가스 시스템 내 수소 혼합 연구 등 현대화 지원, 사고 발생 시 민사벌금 한도 폐지 및 시민 소송 허용 등이 포함됨
- 파이프라인 세이프티 트러스트, 천연자원보호위원회(NRDC), 시에라클럽, 350.org 등 주요 환경단체가 지지 입장을 밝혔음. 파이프라인 세이프티 트러스트는 성명에서 최근 2년간 사고로 30명이 사망했기에 안전 기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
- 법안 통과 시 글로벌 EPC 기업인 삼성물산, 현대엔지니어링,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, 발주처 안전·환경 요건 강화로 입찰 조건 변화가 예상됨
- 과거 엔브리지 칼라마주강 유출(2010년, 정화 비용 12억달러)과 키스톤 송유관 유출(2022년, 수억달러 대응 비용) 사례처럼, 사고 대응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

[\(임팩트온 2025.8.29\)](#)